

광주·전남 아너 소사이어터 ‘새 얼굴’ 탄생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장…진산요양원 차량 지원도

김갑수 곡성 SOO GLOBAL 참치 대표…1억 약정

광주·전남 지역에서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터’ 신규 회원이 잇따라 탄생하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0일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장이 아너 소사이어터 196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식은 광주사랑의열매 2층 나눔문화관에서 구제길 회장과 이상철 아너 대표, 조성은 모금본부위원장이 이 병원장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병원장은 1억원 기부를 약정하고, 가입과 동시에 진산요양원 차량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금 7200여만원을 전달했

다. 이번 기부는 거동이 불편한 정신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 복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병원장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하며 의료 공백 해소에 힘써왔다. 화순소방서 구급지도의사 활동, 전남대병원 발전기금 기부, 지역 저소득층 명절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같은 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곡성군정 군수실에서 김갑수 SOO GLOBAL 참치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터 신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0일 광주사랑의열매 2층 나눔문화관에서 이영민 화순고려병원장 아너 소사이어터 196호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가입으로 전남 168호이자 곡성군 9호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이 됐다.

가입식에는 김갑수 대표와 가족, 허영

호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 조상래 곡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회원 인증패 전달과 기념촬영, 나눔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향후 5년간 총 1억원을 기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0일 곡성군정 군수실에서 김갑수 SOO GLOBAL 참치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터 신규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하기로 약정했으며, 기부금은 전남지역

돌봄이웃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민 병원장은 “의료와 나눔 모두 사랑을 살리는 일”이라며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다”고 말

했다.

김갑수 대표도 “지역에서 받은 신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나주시-한전KDN, 지역상생 동참…전통시장 활력 ‘맞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연계 ‘목사고을시장 꾸러미 상품’ 성과
공공기관 정기 구매·고정 매출 창출…전통시장 상생 모델 구축

나주시가 한전KDN과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안정적인 소비 판로를 마련하며 지역경제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추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목사고을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과 시장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꾸러미 도시락 상품’을 개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한전KDN이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꾸러미 도시락 상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한전KDN의 200여개 이상의 정기 구매가 이뤄지며, 목사고을시장에는 안정적인 고정 매출이

창출됐고 상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상생협력 모델을 계기로 전통시장에는 활기가 더해지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내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에서도 꾸러미 상품 주문이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확산 효과를 보인다.

나주시는 이번 성과를 행정 주도의 전통시장 육성 정책과 지역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합한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발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꾸러미 도시락 상품은 단순한 먹거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



한전KDN이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꾸러미 상품을 단체 구매하고 있다.

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기 접체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켜온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한 온라인 판로 확

대, 나주시상상품권 특별 할인, 품목형 상품점가 지정 확대, 영산포 상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설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행사’를 가졌다.

광주도시공사,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노사 공동…460세대 선물 전달
지역 복지시설 찾아 성금도 기탁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설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행사’를 가졌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올해 신입사원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이날 영구임대주택 460세대를 직접 찾아,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덕담을 나누는 등 훈훈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방문 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400세대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하고, 아동·장애인 보호

기관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하며 나눔의 범위를 넓혔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신입사원들과 함께 정성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을 한 해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외 없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주거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주거복지향상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포함한 대외 표창 ‘주거복지 7관왕’을 달성하는 등 전문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공사는 올해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유백근 거성산업건설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성금 300만원을 고흥군에 전달했다.

거성산업건설, 고흥군에 300만원 기탁

2년 연속 이웃사랑·나눔 실천

고흥군은 최근 거성산업건설로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받았다.

거성산업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명절마다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유백근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명절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나눔 문화가 지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제철소 협력사협회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식자재 구매활동을 진행했다.

포스코광양제철소,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협력사협회와 식자재·생필품 구매 나서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제철소 협력사업회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을 위해 최근 전통시장에서 식자재 구매활동을 진행했다.

제철소는 행정접이그를, 인사노무그룹, 설비기술부, 제선부, 생산기술부 등 여러 부서와 협력사협회가 지난 4일부터 광양5일시장, 옥곡5일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에 필요한 식자재와 생필품을 구매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광양제철소는 매년 명절 때마다 임직원들이 함께 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전통시장 ‘착한 선결재’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고재운 제철소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제철소 직원 모두 동참하는 전통시장 방문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서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11일 회사를 방문한 위기 청소년 지원단체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미경 원장과 전선우 사무처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 관계자들과 청소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랑의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GGM, 청소년단체·복지시설에 500만원 후원금

광주글로벌보터스(GGM)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소년단체와 아동복지시설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회사를 방문한 위기 청소년 지원단체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미경 원장과 전선우 사무처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 관계자들과 청소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랑의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영유아 보호시설인 전남 나주 이화영아원을 찾아 사랑의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훈훈한 설 명절 보내기를 당부했다.

GGM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명절마다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몽현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들 살아 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구현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